

첨단 과학 도시로 향하는 희망의 돛

Voyage to World Science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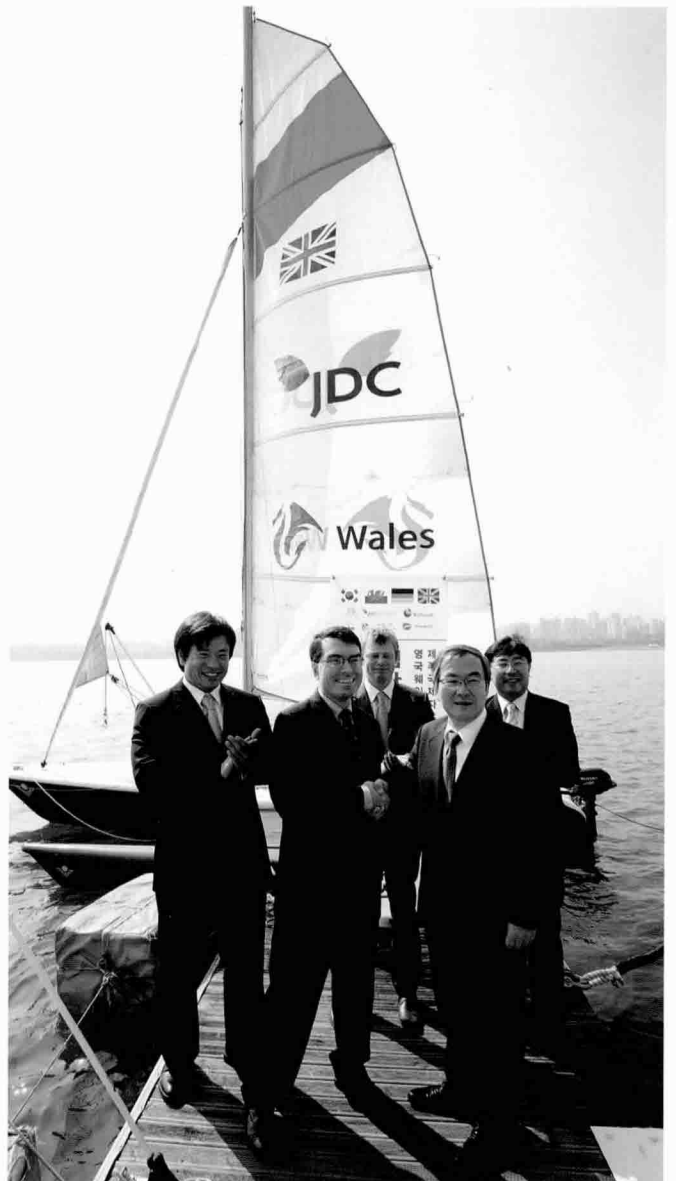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영국 웨일즈 테크니움, 독일 울름시가 첨단 과학 단지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그들의 첫 항해를 축하하고 순항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노블에셋이 함께했다.

에디터 이승민 글 이상현(프리랜서) 사진 최지영

지난 10월 9일, 삼양동 한강난지 지구에 위치한 700 요트 클럽을 찾았다.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강바람이 어디론가 떠날 것을 던지시 권하는 듯한 이날, 마틴 우덴(Matine Uden) 영국대사, 영국 웨일즈의회정부 황재필 한국소장에 이어 JDC 김경택 이사장 등 귀한 손님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사실 이 뜻깊은 만남은 JDC(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영국 웨일즈 테크니움, 그리고 독일 울름(Ulm)시(市) 간의 첨단 과학 단지 업무 협약을 축하하기 위함이었다. JDC는 2006년 과학 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일 울름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7년에는 영국 웨일즈 테크니움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올 9월, 이 삼자가 모여 각각의 지역 발전을 위해 동맹 체제를 결성하게 된 것이다. 협약식에서 이들은 기술 협약, 신 시장 개발, 연구 개발 협약, 해외 파트너십 구축 등을 약속하며 각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JDC는 제주를 관광, 휴양뿐 아니라 첨단, 지식, 산업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국제 자유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설립한 건설통부 산하 정부 출연 기관이다. 첨단 과학 기술 단지 조성 역시 JDC의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JDC는 제주 첨단과기단지의 입주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JDC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울름시는 독일의 대표적인 과학 도시다. 도나우강이 일러강과 블라우강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30년 동안 사이어스 파크를 운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휴대폰 회사 노키아, 자동차 기업 다임러,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생활 과학, 바이오, 자동차, 유통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다. 영국 웨일즈 역시 해외 기업들이 현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테크니움(Technium)으로 불리는 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활발히 돕고 있다. 이미 첨단 과학 단지 개발 및 추진을 통해 테크니움 스완지(Technium-Swansea), 테크니움 디지털 @소니(Technium-



Digital@Sony) 및 정보 통신, 바이오, 광전자, 생물학 등 다양한 테마를 지닌 6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웨일즈의 20여 곳에 각 분야의 특화된 테크니움 단지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이처럼 최첨단 도시를 꿈꾸는 세 곳이 모였으니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닌 듯싶다.

이날 요트 클럽에서는 이들의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웨일즈와 JDC 로고가 새겨진 희망의 돛을 올린 것. 이 돛을 단 요트는 향후 1년간 우리나라 한강을 누비며 이들의 순항을 기원할 예정이다. “다자 간의 업무 협약은 각 나라에 해외 첨단 기업 유치 활동을 돕고, 과학 단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입주 기업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지속적인 협약으로 월드 사이언스 파크 얼라이언스(World Science Park Alliance)를 추진할 생각입니다”라며 웨일즈 위회정부 황재필 한국소장이 그들 항해의 목적을 밝혔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활짝 펼쳐진 돛이 마치 이들의 순항을 예언하는 듯했다. ☺